

# 익산시 귀농·귀촌정책 성과

### 농업 장려수당·주택 수리비·현장실습 등 차별화 도시민 큰 호응... 농촌 인구 1만명 이상 유입 효과

익산시가 추진하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귀농·귀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앞서가는 농업·농촌 지원정책을 펼쳐 귀농·귀촌을 앞둔 도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2월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역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귀농은 407세대 650명, 귀촌은 8,190세대 1만1,166명이 익산 농촌지역에 자리 잡아 새롭게 인생 제2막을 설계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공적인 정착에는 귀농·귀촌 안정적 지원에 나선 익산시의 선제적인 각종 지원정책이 뒷받침됐다.

우선 익산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지역 농촌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1인 세대는 1년간 월 20만원, 2인 이상은 월 40만원의 농업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 이주 후 3년 이내인 만 70세 이하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초기 영농활동을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시설하우스와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 후 3년 이내 귀농인이 농가주택과 농업시설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농기계 대여 시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40세 미만 청년 귀농인에게 1과당 2천만원까지 시설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자금도 연 2%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이들이 이주 초기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체계적인 가족실습농장은 총 20여원을 투입되며 공동

주택 10세대와 실습농장 등 임시거주 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이곳에선 예비 귀농·귀촌인이 최대 10개월까지 거주하면서 농장을 직접 운영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도할 예정이다. 농장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발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농장은 거주기능 뿐 아니라 교육과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 귀농·귀촌인에게 사전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농촌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관련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귀농귀촌인이 궁금해하는 정책사업과 교육, 주택, 농지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는 귀농·귀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앞서가는 농업·농촌 지원정책을 펼쳐 귀농·귀촌을 앞둔 도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 강임준 군산시장, 예산확보 연일 '광폭행보'

### 중앙부처 잇단 방문 설득

강임준 군산시장이 연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시장은 내년 국가 예산 중앙부처안 편성 기간인 지난 11일과 12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군산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국 지역문화정책관과 김정훈 정책기획관을 만나 생활민락형SOX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가족센터 건립 ▲군산푸드 생활문화센터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과 면담을 가져 급변 정부 추경에 ▲일감찬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강 시장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면담을 통해서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군산시 생활하수분야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도 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새만금 일원에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시행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의 R&D의 사전 준비사항을 설명했고, 융융택 연구개발정책실장 면담을 통해 군산시가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고용산업 위기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차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재훈기자

기획재정부 이상화 정책조정기획관과의 면담에서는 정부 경제장관회의 시 또는 경제정책 추진 시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형 일자리, 배달의 명수 온라인 종합 배달앱 구축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12일에는 국토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만나 군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고,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보완 이행사항을 다시 설명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검토를 요구했다. /김재훈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1일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가정 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 익산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점검

### 정현을 시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방문, 봉사자 격려 등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1일 익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가정 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미사용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각 가정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다.

4월 27일부터 시작한 꾸러미 배송은 원예농협 공공급식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매일 80명씩 투입되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친환경쌀 잡곡 유정란 버섯류 채소류 등 10여가지 품목을 소분해 포장 배송한다. 이에 따라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스크를 쓰고 종일 고된 작업을 하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꾸러미 상품들의 신선도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 높은 공급을 요청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단기간에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므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꾸러미 상품 및 배송 관련 문의는 학교급식지원센터(850-4949)에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단기간에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므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꾸러미 상품 및 배송 관련 문의는 학교급식지원센터(850-4949)에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 게놈엔내츨바이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코로나19 위기에 불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들이 연달아 투자를 결정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주)게놈엔내츨바이오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하여 윤규형 대표와 정현을 익산시장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물식품국장 윤태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에 설립한 (주)게놈엔내츨바이오(대표 윤규형)는 특허 등록된 폴라겐 제조 공법을 이용해 어류 비늘에서 추출한 저분자 어린(魚鱗)폴라겐을 주로 생산하며 국내 폴라겐 시장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8,226㎡(2,488평) 부지에 약 60억원의 투자해 2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는 물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놈엔내츨바이오는 6월중 어린 폴라겐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장 건립에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R&D지원시설, 원료수급, 판로 등 다각적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익산시, 농식품부, 전북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를 결정한 (주)게놈엔내츨바이오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성공적으로 정착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강소특구지정 총력

군산시가 산업구조 다변화와 연구소 기업 기술창업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인 강소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군산 강소특구는 군산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군산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을 배후공간으로 지정해 스마트 그린 에너지·자동차 융복합 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월 전문가위원회 현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군산 강소특구의 지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규모 실증연구단지과 기업유치가 용이한 장기기대유지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의 기술창업 최적지라 할 수 있다.

군산시는 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인 강소특구계를 신설하고 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원 특례 조항에 대한 조례 개정과 지난 2019년부터 도내 지자체 최초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훈기자

## 재난기본소득 기부로 푸른익산 가꾸기 나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기부물센터(☎577-0072)를 설치해 기부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이사장 김근섭)는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시민들과 단체들이 기부한 재난기본소득 기부금으로 '재난위기극복 시민의 숲' 조성에 나선다.

'재난위기극복 시민의 숲'은 올 가을에 동산동 유천생태습지 공원 내 마련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을 1호로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기부한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만의 새로운 기부문화의 불이 일어나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www.greeniksan.or.kr/ ☎063-854-4300)

/익산=장양원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